8. 벗을 사귀기

여덟째는 벗을 택함이니, 도를 전해 받고 의혹을 해결하는 것은 스승에게 힘입더라도 서로 갈고 닦아 인을 돕는 것은 실로 벗에게 힘입는 것이다.

그러므로 배우는 사람은 반드시 충성과 신의, 효도와 우애, 강직하고 방정하며, 돈독한 선비를 가려 벗으로 사귀어서 잘못이 있으면 서로 경계하고 선행으로써 서로 권하고 충고하여 덕행을 닦음으로써 벗의 윤리를 다해야 한다.

만일 마음가짐이 돈독하지 못하고 자유의 절제가 엄하지 못하여 떠들고 다니며 즐겁게 노는 것만 좋아하고 말과 기운만 숭상하는 자는 모두 벗으로 사귀지 말아야 한다.

해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스승이 있다.' 많이 알려진 말입니다. 그런데 네 명은 안 됩니까? 다섯 명은요. 많을수록 본받을 것이 많지 않나요? 꼭 세 명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은 『논어』에 있는 말입니다. 공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 사람이 갈 때에 반드시 내 스승이 있습니다. 어진 것을 가리어 좇고, 어질지 아니한 것을 고쳐야 합니다."(『논어』 7:21)

세 명이라고 한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 명 중에서 나를 빼면 두 명이 남지요. 두 명은 서로 상반되는 모습을 대표합니다. 한 명이 어질다면, 다른 한 명은 어질지 않습니다. 한 명이 지혜롭다면, 한 명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네 명이든 다섯 명이든, 이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세 명이라고 했습니다.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낸 예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가르침을 얻는다는 뜻으로,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는 실수하지 말라.' '민수는 무책임한 병태를 반면교사 삼아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등으로 사용합니다. 잘못된 행동을 보면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많이 이야기 합니다.

반면교사의 반대말은 뭐지요? 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긍정적인

측면에서 가르침을 얻는다는 뜻 말입니다. 정면교사라고 합니다.

세 사람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 세 사람이 길을 갑니다. 나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양쪽에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반면교사, 한 명은 정면교사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교사를 보고는 반대로 하려고 합니다. 정면교사를 보고는 따라하려고 합니다.

세 사람이 가는데 반드시 스승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도 스승이 되고, 긍정적인 측면도 스승이 됩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다 배울 것이 있습니다.

공자가 순임금이 지혜로운 분이라고 하면서 묻기를 좋아하고 평범한 말을 살피기를 좋아했다(『중용』 6:1) 했습니다. 평범한 말을 살피는 마음 자세는 세 사람이 가는데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는 말과 상통하는 바가 있습니다.

친구라는 말은 친할 친, 오랠 구로 이루어진 한자말로,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을 지칭합니다. 꼭 시간이 오래되어야만 친구는 아니지요. 오래토록 친함을 유지할 정도로 정분을 나누고 마음이 통하는 사이라는 뜻이겠지요.

친구는 다양합니다. 또래집단, 비슷한 연령대의 친구이지요. 생각이나 사고가 엇비슷해서 쉽게 친구가 됩니다. 고향친구, 어릴 적 죽마고우이지요. 추억을 공유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반갑습니다. 직장 동료, 업무를 통해 정분과 친함을 나눕니다. 경쟁사회에서 서로 보이지 않는 암투를 벌이기도 하지만 공통의 화

제가 있지요. 밉상인 상사는 공감대를 금세 형성하는 좋은 주제지요. 망년지우, 나이를 잊은 친구입니다. 나이 차이가 나이만 뜻이 통하는 사이입니다. 상대가 누구든 친구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 상대방을 만나면 반갑습니다.

율곡은 친구를 가려서 사귀라고 합니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차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같은 반 친구 중에는 똑똑한 친구, 야무진 친구, 약삭빠른 친구, 거친 친구, 덜떨어진 친구, 가난한 친구, 부자 친구, 외국인 친구 등 다양합니다. 어떻게 차별할 수 있겠습니까?

세 사람이 가는 길에는 반드시 스승이 있다는 공자의 말처럼 본받을 만한 친구는 정면교사로 삼고, 잘못을 저지른 친구는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습니다.

제자인 만장이 친구를 사귀는 도리를 물었습니다. 맹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 사이에는 끼어드는 것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상대방이 나이가 많다는 생각이 끼어서도 안 되고, 부유하다는 마음이 끼어서도 안 되고, 잘나가는 사람의 형제라는 마음이 끼어서도 안 된다. 그 사람의 덕을 보고 사귀어야 한다."(『맹자』 10:3)

맹헌자는 백승, 곧 백대의 수레를 소유한 권문세가의 자제였습니다. 수레 한 대는 네 마리의 말이 끕니다. 말 한 마리는 요즘으로 따지면 차 한 대입니다. 그에게는 다섯 명의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서로 친하게 지냈는데, 맹헌자는 자신이 부유하고 권세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없이 친구를 대했습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맹헌자를 부유하고 권세 있는 집안의 자제로 의식하지 않았습니다.(『맹자』 10:3)

율곡이 말하는 친구는 동지란 말로 풀면 이해가 쉽습니다. 동지는 같을 동, 뜻 지가 합쳐진 한자말로 뜻을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일제 식민지배 하에서 독립을 위해 목숨을 내놓았던 독립군들이 서로를 동지라고 불렀습니다.

율곡이 밝힌 학문의 목표는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공자의 말을 빌리면 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친구는 그래서 서로서로 인자가 되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증자가 말했습니다. "군자는 학문으로써 벗을 모으고, 벗으로써 인을 돕는다."(『논어』 12:24)

친구는 동일한 목표를 공유한 도반이고 동지입니다. 성인이 되겠다는. 율곡은 이런 종류의 친구를 말했습니다. 목표를 공유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사람을요. 만약 목표가 다르거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가까이 하기 어렵겠지요. 비록 동네친구이고, 죽마고우이고, 직장동료이고 망년지우처럼 반갑고 친한 사이일지라도 말입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어울린다는 유유상종이라는 말도 있지요. 맹자가 이에 대해 좋은 예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나라에서 자탁유자를 시켜 위나라를 공격했습니다. 위나라에서는 유공지사로 하여금 나가 맞서 싸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자탁유자가 하필 병이 나서 활을 들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면서 마부에게 자신을 뒤좇는 자가 누군지 물었습니다. 마부가 유공지사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자탁유자가 얼굴에 수심이 가시며 나는 살았다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부가 의심이 나서 유공지사는 위나라에서 활을 잘 쏘는 사람인데 선생께서 살았다고 하니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자탁유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공지사는 윤공지타에게 활쏘기를 배우고, 윤공지타는 나에게 활쏘기를 배웠다. 윤공지타는 단정한 사람이다. 그가 벗을 취할 때 반드시 단정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잠시 후에 유공지사가 근처까지 추격한 후에 "선생은 어째서 활을 잡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자탁유사가 "오늘 내가 병이 나서 활을 잡을 수 없다." 했습니다.

유공지사가 말합니다. "저는 윤공지타에게 활쏘기를 배우고, 윤공지타는 선생에게 활쏘기를 배웠으니, 내가 차마 선생의 도로써 도리어 선생을 해칠 수 없습니다. 비록 그렇지만 오늘 일은 임금의 일이라 내 감히 그만둘 수 없습니다. 말을 마친 후에 화살을 뽑아서 바퀴에 두드려 그 쇠를 버리고 네 발을 쏜 뒤에 돌아갔습니다."(『맹자』 8:24)

난초를 가까이 하면 난초의 향기가 몸에 밴다고 했습니다. 먹물을 가지고 놀다보면 옷에 먹물이 묻기 쉽습니다. 유명한 말이지요. 붉은 먹물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붉은 먹물이 묻고 검은 먹물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은 먹물이 묻는다. 누구를 가까이 하고 사귀는지 중요합니다.

공자는 가까이 할 친구와 멀리 할 친구를 구분한 적이 있습니다. "유익한 벗이 세 종류, 손해되는 벗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곧고 정직한 사람을 벗하며, 성실한 사람을 벗하며, 보고 들은 것이 많은 박식한 사람을 벗하면 유익합니다. 편벽된 사람을 벗하고, 유순하기만 한 사람을 벗하며, 말만 잘하는 사람을 벗하면 손해됩니다."(『논어』 16:4)

곧고 정직한 사람은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친한 친구 사이라도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고치도록 충고하는 일은 썩 내키지 않습니다. 충고를 듣는 친구가 기분이 언짢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잘못은 고쳐야 합니다. 변화하고 발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충고를 해 줄 수 있는 친구, 참으로 필요합니다. 좋은 약은 입에는 쓰지만 몸에는 좋다는 말 그대로입니다. 선으로 권면하는 것이야말로 친구간의 도리라고 맹자는 말했습니다.(『맹자』 8:30〈3〉)

성실한 친구는 나를 분발시킵니다. 어떤 일을 할 적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지 다짐합니다. 성심성의껏 상

대방을 대하고 진중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지 못한 내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분발하려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박식한 친구는 좋은 안내자입니다. 수학 문제를 못 풀어서 쩔쩔맬 때 친구가 가르쳐 준 풀이법은 답답한 속을 뻥 뚫리는 쾌감을 선사합니다.

공자의 말이 떠오르네요. "열심을 내지 않으면 열어주지 않으며, 답답해하지 않으면 말해 주지 않으며, 한 모퉁이를 들어 세 모퉁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다시 말해 주지 않는다."(『논어』 7:8) 끙끙거리며 고심하다 알아낸 해법은 결코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고 선명하게 남습니다.

편벽된 사람은 많이 알고 있기도 하지만 시각이 한쪽으로 편향되어 전체를 조망하지 못합니다. 편견을 가지면 그 지식이 도리어 편견을 더욱 견고하게 할 뿐입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말을 이럴 때 사용할 수 있겠네요.

유순한 사람은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감싸는 데에는 유리합니다. 그러나 부드럽게만 대처하다 보면 올바른 방향을 놓칠 수 있습니다. 친구 사이는 선을 권면해야 하는 도리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불쾌할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유순하기만 한 사람은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하지 않기 때문에 당장은 좋게 넘어갑니다. 결국에는 둘 다 잘못된 길에서 헤맬 수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상대의 의중을 잘 간파하여 위안이 되는 말

을 하곤 합니다. 말을 앞세우고 말만 잘하는 사람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실함이 결여되어 있어서 결국에는 공허합니다.

율곡의 말을 다시 음미해 볼까요? 누구를 사귀라고 했지요? '충성과 신의, 효도와 우애, 강직하고 방정하며, 돈독한 선비를 사귀어라. 잘못이 있으면 서로 경계하고, 선행으로써 서로 권하고 충고해라. 그리하여 덕행을 닦아라. 이것이 벗의 윤리를 다하는 것이다.'

어떤 유형의 사람을 친구로 사귀지 말라고 했지요? '마음가짐이 돈독하지 못하고, 자유의 절제가 엄하지 못하여, 떠들고 다니며 즐겁게 노는 것만 좋아하고, 말과 기운만 숭상하는 자는 벗으로 사귀지 말라.'

여러분은 어떤 친구를 사귀나요? 여러분은 어떤 친구인가요?

» 한문 원전 음미하기

傳道解惑. 雖在於師. 而麗澤輔仁. 實賴朋友.
전 도 해 혹 수 재 어 사 이 려 택 보 인 실 뢰 붕 우

도를 전해 받고 의혹을 해결하는 것은 스승에게 힘입더라도 서로 갈고 닦아 인을 돕는 것은 실로 벗에게 힘입는 것이다.

傳道: 도를 전하다/解惑: 의혹을 해소하다/雖: 비록 ~이지만/在於: ~에 있다/師: 스승/而: 어조사, 그러나/麗澤: 인접한 두 연못이 서로 윤택하게 한다는 뜻, 학우끼리 서로 도와 학문과 닦는 일/輔仁: 인을 닦도록 돕는다는 뜻, 친구들끼리 서로 선을 권하여 인덕을 쌓도록 격려하고 돕는다는 뜻/實: 실제로/賴: 의뢰하다/朋友: 친구

學者必須擇忠信孝弟剛方敦篤之士, 與之定交,
학 자 필 수 택 충 신 효 제 강 방 돈 독 지 사 여 지 정 교

相箴以失, 相責以善, 切磋琢磨, 以盡朋友之倫.
상 잠 이 실 상 책 이 선 절 차 탁 마 이 진 붕 우 지 륜

若立心不篤, 檢束不嚴, 浮浪嬉遊, 尙言尙氣者,
약 입 심 부 독 검 속 불 엄 부 랑 희 유 상 언 상 기 자

皆不可與之敎也.
개 불 가 여 지 교 야

그러므로 배우는 사람은 반드시 충성과 신의, 효도와 우애, 강직하고 방정하며, 돈독한 선비를 가려 벗으로 사귀어서 잘못이 있으면

서로 경계하고 선행으로써 서로 권하고 충고하여 덕행을 닦음으로써 벗의 윤리를 다해야 한다. 만일 마음가짐이 돈독하지 못하고 자유의 절제가 엄하지 못하여 떠들고 다니며 즐겁게 노는 것만 좋아하고 말과 기운만 숭상하는 자는 모두 벗으로 사귀지 말아야 한다.

學者: 배우는 사람/必須: 반드시/擇: 고르다/忠信: 충성되고 신실하다, 『논어』에 말은 충성되고 신실하라고 했다/孝弟: 효도하고 우애하다, 『논어』에 효도와 우애가 인을 근본이라고 했다/剛方: 강직하고 방정하다/敦篤: 돈후하고 독실하다/之: ~의/士: 선비/與之: 그와 더불어/定交: 사귀다, 친구를 맺다/相箴: 서로 고치다/以失: 잘못으로써, 잘못을/相責: 서로 책려하다/以善: 선으로써, 선을/切磋: 자르고 갈다, 자른 후에 다시 자른 면을 갈아서 부드럽게 하다/琢磨: 쪼고 갈다, 정으로 돌을 쪼아 모양을 만든 후에 다시 부드럽게 다듬다/以: ~써/盡: 다하다/朋友之倫: 친구간의 윤리/若: 만약/立心: 마음을 세우다/不篤: 독실하지 못하다/檢束: 몸을 단속하다/不嚴: 엄하지 못하다/浮浪: 경박하게 방탕하다/嬉遊: 즐겁게 놀다/尙言: 말을 숭상하다, 말하기를 좋아하다/尙氣: 기운을 숭상하다, 기운을 내세우다/者: 사람/皆: 모두/不可: ~해서는 안 된다/與之交也: 더불어 사귀다